예수님과 12 제자들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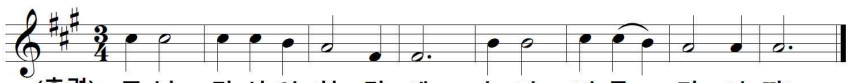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신명 4,1-2.6-8

[화답송] ..... 시편 15(14),2-3ㄱ.3ㄴㄷ-4ㄱㄴ.5 (◎1ㄱ)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제 2 독서] ..... 야고 1,17-18.21ㄴ-22.27

[복음환호송] ..... 야고 1,18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7,1-8.14-15.21-23

[성가안내]

- 입당성가 [24] 내 맘의 천주여
- 봉헌성가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 성체성가 [164] 떡과 술의 형상에
- 파견성가 [455] 주님을 따르려 모여 있는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안길자 세실리아	전보나
박송남 프란치스코	홍범 요한
전복저 아가다	윤동진 프란치스코
이규정	이은경

생미사	봉헌
남승례 아가다 (건강 회복 위하여)	이은경 헬렌
이 로잔 캐더린	익명
민유리 아가다, 민혜리 미카엘라	김정선 젤뚜르다
민성현 요셉, 한소리 카타리나	김정선 젤두르다
박수정 크리스티나 (생일 축하)	양미숙 마리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8월 29일	박기웅 사도요한	민완준 필립보	최진영 수산나	민완준 필립보	김종선 비비안나
9월 5일	이은경 헬렌	박기목 알버트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김영숙 카타리나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공지사항

● 2022년 달력에 광고 신청 받습니다.

본당 설립 25주년을 맞는 해 달력 광고 신청 받습니다.

선착순 10분! 신청 마감 : 9월 12일 / 광고비 : $100

● 봉성체, 병자성사, 환자방문, 가정방문

9월부터 시작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을 꾸리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양업회'의 주 활동은 '성소후원'입니다.

1. 사제성소, 수도성소를 살고 있는 사제와 수도자들 위한 기도
2. 사제성소, 수도성소 증가를 위한 후원등 제반 활동

● 공동체의 지난 25년간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공동체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e-book (홈페이지)에 25년의 역사 자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역사자료, 글, 사진등을 찾습니다. 올리고 싶은 것이 있으신 분은 신부님, 수녀님께 연락 바랍니다.

● 주일 학교 교리 교사 찾습니다.

9월부터 팬데믹 이전으로 주일학교 일정이 돌아간다는 가정 아래 미래 교회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신앙생활과 사랑의 예수님께로 인도 해 줄 봉사자들을 환영합니다.

문 의 : 김 가연 크리스티나

연락처 : 347-882-2244

● 예비자 교리반 시작 공지입니다.

- 교리 시작 : 2021. 9. 19. 주일 미사 후
- 신 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내 주세요.
- 세례 예정 : 2022년 4월 17일 - 부활 대축일

● '신명' 풍물패 모임

- 8월 29일 오후 2시~4시, 교육관 4층 음악실 앞방

● 제185차 은총의 샘 꾸리아 Zoom Meeting

- 일 시 : 2021. 8. 29(일) 오후 1시
- Meeting ID : 833 8685 8443
- Passcode : 1hNuj2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미사 안내]

1. 주일 미사 중 "마스크 착용" 꼭 해 주십시오.

- 주일 미사 -
일요일 9:15 am (한인공동체)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울뜨레아	1st 주일 11:00 am	교육관 4
학부모회	1st 주일 11:00 am	교육관 3
요셉회	2nd 주일 11:00 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 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 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 am	Lower Church
양업회	3rd 주일 11:00 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김동희(헬레나)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용기(요셉)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진정은(마리아)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노의선(프란치스코)
이병국 (요한) 이진자(세실리아)

[2021년 8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교회

성령께서 교회에 은총과 힘을 베풀어 주시어 교회가 성령의 빛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NEW WONJO 원조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마르코 7,1-8.14-15.21-23)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봅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말하는 손 씻는 문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오경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기에,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대라 먼지 바람이 많고 물이 귀한 곳입니다. 따라서 외출하고 돌아 와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 몸을 씻는 것은 위생에 큰 도움을 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는 수단이 될까요?

법의 자구 하나하나를 잘 지키는 것보다 그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존재하고 지켜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죽음의 땅에서 구출하시고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해 주신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정신이 아니라 문자를 제 나름대로 해석하여 규칙을 더해 가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며 백성에게 강요합니다. 이 규칙들은 몇 백 년의 시간을 거치며 '위대한 조상들의 전통'이 되어 백성을 옥죄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백성을 차별하고, 죄인 취급하며 폭력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규정과 율법은 그 기본 정신에 따라, '죽음의 땅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다가가시어 그들을 살리셨듯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당이나 사회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 서철 바오로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특징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툽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스스로 왜곡하는 일이 많습니다. 화가 났어도 그것이 화가 난 것인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인합니다. 서운하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왜 그런가?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했다가 속 좁은 사람이란 비난을 들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또 자기 마음 안에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알 사람은 다 아은 데도 끝까지 자기감정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이러는 것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식으로 자기 분노를 합리화 하는데 달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들여다 보려고 하지 않고 술로 달래거나 감정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살면 생기는 부작용이 '뒤끝'입니다. "저 사람은 뒤끝이 안 좋아"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감정 표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사람,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란 악평을 듣습니다.

간혹 성인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을 보곤 합니다. 성인들은 자기 마음 안에 어떤 불순한 감정도 없는 양 자기 안의 불편한 감정들을 다 외부의 악이 던지는 유혹이라고 여깁니다. 자신은 순수결정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과 내 마음 안, 특히 무의식 안의 시궁창 같은 상태를 직면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에 필수입니다. 이런 자기 직면을 거부하면 세시증, 결벽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경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속칭 "짝퉁 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위에 유머 바람 한 자락..... 어느 **'기품 있는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기품 있는 신부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품 있게 말해준다. 새로온 보좌 신부가 강론 때 버벅거리길래 '넌 왜 강론을 비빔밥처럼 하냐? 왜 나처럼 기품 있게 하지 못하냐'고 조언했다. 그런데 신자란 것들이 보좌가 버벅대는 건 귀엽다하고 기품 있는 내 강론은 식상하단다. 천박한 것들이다.

신자들이 깔깔댈 때 보좌가 같이 깔깔대는 것 보고 기품 있게 살라고 조언했다. 근데 신자란 것들이 보좌가 귀엽다면서 나 같은 주임 밑에서 잘 견딘다고 위로해 준단다. 천박한 것들끼리 잘들 논다.

강론때 어려운 전문 용어를 잘 사용하는 나는 박식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천박하게 웃기는 보좌 신부 강론은 녹음까지 하면서 왜 내 강론 시간에는 자빠져 자고 하는 것일까? 수준 낮은 천한 것들이다.

나는 식사때 모든 것이 셋팅 되어 있어야 하고 먹을 땐 음식 소리를 안낸다. 근데 보좌놈은 소리내기 일쑤고 엄청 요란하다. 태생이 상 것 같다. 근데 신자란 것들이 날 본 받을 생각은 안하고 보좌의 먹성을 칭찬하며 내 주둥이가 짧단다. 헐! 사람을 몰라보는 천박한 것들이다.